



빛고을 코스모스 축제

주최하고 광주시 서구청이 후원했다.

3일 오전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암교 인근 광주천변에서 열린 '2007 빛고을 코스모스 축제'에 참가한 시민 2천여명이 코스모스 길을 걸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이날 축제는 비영리사회단체인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이 주최하고 광주시 서구청이 후원했다. /위지량기자 jrwi@kwangju.co.kr

年 899% '살인이자'... 사채업 기승

급전이 필요했던 최모(43·상업)씨는 지난해 6월께 'OO일수'라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이모(24)씨에게 일수로 200만원을 빌렸다. 하지만, 최씨가 이날 정작 손에 쥐인 돈은 174만원이었다. 선이자 20만원과 매일 내야하는 6만원(월 476%)의 이자를 먼저 떼서다. 한 달간 최씨가 갚아야 하는 돈은 180만원.

高利 받으려 대부업 등록 않고 영업

광주·전남 무등록 업자 등 52명 적발

대부업체의 경우 대출금리를 최고 연 66%, 월 5.5%로 제한하고 해당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하지만, 서민들과 직결되는 소규모 사채업자들은 음성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기 위해 대부분 무등록 불법영업을 일삼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9월 한 달 동안 불법 고리 사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46건에 52명(광주 30건 32명·전남 16건 20명)을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채업자 등록 의무화와 사채이자 상한선을 제한하는 대부업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사채업자들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일부 무등록 사채업자들은 최고 연 899%·월 475%에 이르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는 것은 예상과 연체자들에게 회포를 부리는 등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지난 4월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 원룸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린 뒤 전단지 등을 보고 찾아온 320명에게 1인당 100만~1천만 원을 최고 80일까지 빌려주는 조건으로, 8~12%의 선이자를 댄 뒤 매일 2만~12만원씩(연 200~889%)의 이자를 받아 쟁전 조모(25)·박모(24)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 적발된 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체가 전체 적발 건수의 60% 가량을 차지했으며, ▲이자율 제한위반이 뒤를 이었다.

지리산 횡단도로 또 사고

관광버스 방호벽 충돌 10명 중경상

지리산 횡단도로에서 초등학교 동창생들을 태운 관광버스가 방호벽을 들이받아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74m×x×x호 25인승 버스가 급커브를 틀지 못하고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구례 초등학교 14회 동창생 19명 중 홍모(61·남원시 주천면)씨 등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남원의료원 등에서 치료

초등생 성추행 50대 검거

광주 북부경찰청은 3일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이모(59)씨를 성폭력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5시30분께 광주 북구 풍향동 인근 야산에서 귀가 중이던 A(9)양을 유인,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다. /이중형 기자 glee@kwangju.co.kr

3일 오후 5시17분께 지리산 횡단도로 시작 지점인 구례군 광의면 방광리에서 천은사 방향으로 내려오던 전북

74m×x×x호 25인승 버스가 급커브를 틀지 못하고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구례 초등학교 14회 동창생 19명 중 홍모(61·남원시 주천면)씨 등 10명이 중경상을 입고 남원의료원 등에서 치료

재판 기일·선고 결과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가합○○○ 사건의 다음 재판기일은 2007년 ○월 ○일임(장소: ○○○)' 앞으로 법원의 재판기일과 선고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아볼 수 있게 된다. 광주지방법원은 4일부터 민사·가사·형사·행정 사건 당사자가운데 지정된 변론·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 및 소송 대리인에게 우편 통지서와 별도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다음 재판기일을 통지하기로 했다. 법원은 또 권력재판을 받은 형

사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징역유예 등 선고결과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알려줄 예정이다. 실형은 제외된다. 이는 최근 부산지법에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은 40대 피고인에게 선고결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바람에 벌금형을 받고도 31일간 구치소에 수감되는 것과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이 서비스로 재판기일을 몰라 불이익 당하는 것을 막고 형사 피고인의 항소권 등 절차적 권리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

'고유가' 기름 도둑 활개

나주경찰, 승용차 휘발유 절도 2명 검거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유류 절도가 잇따르고 있다. 나주 경찰은 3일 기름값을 아끼기 위해 남의 승용차 휘발유를 상습적으로 훔친 자동차 정비공 이모(40·나주시 송월동)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2일 낮 12시28분께 나주시 송월동 A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광모(47)씨 승용차에서 휘발유 40ℓ(시가 6만원 상당)를 훔쳐서 등 이날 밤 9시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휘발유 600ℓ(시가 9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광주 공산경찰은 탱크로리에서 우레탄 연료를 훔친 최모(51·전주시 완산구)씨 등 2명을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이들은 지난 달 26일 밤 11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김모(52·울산시 남구)씨 소유의 탱크로리에서 밸브를 열고 호스를 넣어 단열재로 쓰이는 우레탄 연료 200ℓ(시가 200만원 상당)를 빼내 드림통에 싣고 달아난 혐의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농기계·독사·독초...안전사고 잇따라

'가을철 안전사고 주의보' 속에 농기계 사고·독사·독초·독초 복음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일 오후 6시19분께 나주시 남평읍 농로에서 강모(여·58)씨가 몰던 트랙터가 운전 부주의로 전복돼 강씨가 중상을 입었다. 앞서 지난 1일에도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에서 택시와 경운기가 충돌, 경운기 운전자 심모(75)씨 등 2명이 다쳤다. 지난 2일 오후 7시59분께 고흥군 도화면 발포리 야산에서 관광객 주모(54·대전시 중구 용두동)씨가 약초를 캐던 중 독초를 도라지로 오인하

고 복음해 마비와 구토 증세를 보여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같은 날 오후 1시13분께에도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야산에서 밤을 줍던 이모(78)씨가 독사에 물려 오른쪽 지손가락을 물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방재청은 앞서 지난 1일 '가을철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방재청이 집계한 최근 3년간 월 평균 농기계 등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월 평균 46건인데 비해, 수확기인 10월에는 94건으로 49%가량 많았다. /인현주기자 ahj@kwangju.co.kr

나원침 (7322) 김장동



"무량태수" 선배 비난한 동료 폭행

○...동료직원이 자신과 절친한 직장 선배의 별명을 부른 것에 화가 나 폭력을 휘두른 40대 택시운전사가 경찰서행.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영업용 택시운전자 임모(46·광주시 광산구)씨는 지난 2일 밤 9시10분께 광주 북부 문흥동 C택시회사 앞 마당에서 동료 김모(43)씨의 얼굴 등을 3차례 때렸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인근 식당에서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나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김씨가 'O태수'라는 이름을 가진 선배의 이름을 빗대 "무량태수, 바보다"라고 말한 것에 격분, 주먹을 휘둘렀다고. ○...임씨는 경찰에서 "김씨에게 그 만하라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말을 듣지 않아 나도 모르게 실수를 저지르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 /이중형 기자 gle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eogi Bocheonggi' (세기보청기) hearing aids. It features a cartoon rabbit character and text: '까다로운 토끼씨가 선택한 세기보청기', '난청해결전문가 세기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dogidat.co.kr', and phone numbers 1588-8499 and 080-222-0100.